

지역기술 창업육성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전북도-바이오진흥원, 참여기업 전년대비 매출 39%·고용 34% 증가 성과 창출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은 12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2023 지역기술 창업육성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용화 지역혁신과장을 비롯한 참여기업 41개사 대표자 및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경과보고, 우수기업표창 및 우수사례발표 순으로 진행했다.

'지역기술 창업육성 지원사업'은 지역주력산업 분야 유망기술 스타트업 농생명·바이오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도의 농생명·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이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진흥원이 주관하고 전북대학교와 한국농수산대학교 장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12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2023 지역기술 창업육성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업보육센터가 참여하여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사업이다.

전북 농생명 창업리그를 통해 우수창업기업을 선발하고 시제품제

작, 제품디자인개발 등 창업기업 스케일업을 위하여 총 41개사를 지원하였으며 투자유치, 마케팅 관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도 실시하였다.

올해 참여기업들은 전년대비 총 매출액 39% 증가, 고용창출 34% 증가라는 괄목할만한 결실을 거두었다.

제품 및 기업인증 32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61건, 투자유치 4개사 등 스케일업 지원을 통한 기업성장 경쟁력 확보에도 큰 성과를 이뤘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본 사업으로 전북 농생명 산업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는데 큰 의미가 있다. 창업기업 대표님들의 노력으로 전라북도 농생명 산업이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도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2023 탄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지난 1년 간 총 탄소소재·부품 및 응용제품 관련 총 117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17만달러 수출 계약 달성

탄소진흥원, 탄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방운혁)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2023 탄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지난 1년 간 총 탄소소재·부품 및 응용제품 관련 총 117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12일 밝혔다.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박종범, 이하 월드유다)가 주관한 이번 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6대 탄소소재 관련 기업 4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현지 파트너 발굴 및 수출 성과 도출, △시장조사 및 진출전략 수립, △시장성 테스트 등이 진행되었으며, (주)에스컴텍, (주)브이스페이스 (주)비니텍 등 20개사에서 총 25개의 수출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주)브이스페이스는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CFRP)을 적용한 고효율 고밀도 배터리 모듈 기술 및 배터리 기술로 독일 VIOSSON BIKES와 3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

였다. 또 (주)삼덕첨유도 그래핀을 적용한 기능성 폴리에스터 가연사 제품 및 기술로 미국 PBS International 과 8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하였다.

한편, 탄소복합재 요트제작 기업인 (주)에스컴텍의 경우 4월 진행된 JEC World 2023 한국관 부스 참여를 통해 18만불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도 미국 YACHT EXPORT LLC와 21만달러 상당의 수출 MOU를 맺는 성과를 보였다.

탄소산업진흥원 진흥사업실 유원재 실장은 "이번 수출성과는 월드유다의 우수한 해외 바이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진흥원이 국내 기업의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 활동을 이어온 결과이다. 국내 탄소융복합 기술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건협 전북도회, 실질자본금·연말결산 교육

건설업 회계처리 이슈와 쟁점사항 등 설명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소재철)는 12일 전북 건설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임직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연말결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한 회원사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이종현 회계사가 건설업 기업간담자침에 기반을 둔 건설업 회계처리 이슈와 쟁점사항 등을 설명했다.

소재철 회장은 "결산 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각종 세무·회계 기준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자칫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을 준비했다. 앞으로도 회원사가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회원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12일 전북 건설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임직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건설업 실질 자본금 및 연말결산 교육'을 진행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산림규제 애로사항 청취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림청 규제혁신의 체감 향상을 위해 관내 목재산업체 방문을 통해 산림규제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소통을 강화했다.

관리소는 관내 목재산업체를 찾아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적극행정 대표사례, 산불예방 및 사유림매수 정책을 홍보했다.

관리소는 관내 소규모 목재제재소의 원목 수급과 입찰 시의 어려움과 경기 악화 및 값싼 수입 목재로 인한 국내 목재 수요와 일자리가 감소한 실정을



들을 수 있었다. 더불어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통한 임업인 지원을 위해 △숲경관채널링을 도입해 임가소득 창출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림사업참여인의 사업종류 추가 시 별도 사무실 구비 의무를 면제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림청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생활에 더욱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혁신도시·만성지구 잔여토지 공급

전개공, 혁신도시 주차장용지 1필지·만성지구 준주거용지 2필지 등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전주·완주혁신도시 내 주차장용지(1필지), 전주 만성지구 내 준주거용지(2필지) 총 3필지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는 기존 계약 해지에 따라 제공되는 토지로서 주차장용지 1필지(981.2㎡, 4억 9600만원), 준주거용지 2필지(856.9㎡, 13억6900만원, 856.3㎡, 13억7000만원)로 부동산가격 상승 전 가격으로 동결되었으며, 일사법에서 23개월 분할납부로 납부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실수

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http://www.orbid.co.kr>)를 통해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찰된 토지는 별도 일정에 따라 재공급 예정이다.

공사는 상기 토지 외 전북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와 의료시설 및 종교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c.co.kr)를 참고하거나 전북개발공사 보상반영처(063-280-742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